

학교 기물 파손 시 배상 기준이 궁금합니다.

중1 학부모입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아이가 쉬는 시간에 학교 운동장에서 공차기를 하다가 교실 창문을 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학교생활 중 일어난 고의성 없는 기물 파손도 학생이 전액 배상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_변영주(42·서울 중구 신당동)

학생의 장난이나 부주의로 인한 기물 파손은 학생 부담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전 초·중·고교의 학교생활 중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간혹 학교 예산으로 기물 파손 수리 비용을 충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학생의 장난이나 부주의로 인해 학교에서 발생하는 기물 파손이나 고장은 ‘원인자 전액 부담 원칙’이 기본이다. 단, 학교 교육과정 활동이나 체험 활동 중 발생한 고의성 없는 기물 파손이나 고장은 과실 여부를 따져 ‘학교안전공제회’가 심의·규정한 원칙에 의거해 보험 처리하거나 해당 기물에 대한 감가상각(시간에 따라 가치가 줄어든 것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을 적용해 원인자가 배상해야 할 금액을 결정한다”고 전합니다. @

MORE TIP

학교 기물 파손에 대한 배상 규정은 학교 자율권에 의거합니다. 일반적으로 배상 책임 판단 기준과 면책 기준은 ‘고의로 인한 파손’ ‘과실로 인한 파손’ ‘파손 책임이 다수인 경우’로 나뉩니다. 원인자의 고의성이 입증됐다면 전액 배상해야 하고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과실이라면 배상 책임만 집니다.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렵다면, 파손에 가담한 모든 학생이 연대 책임을 집니다.

취재 김한나 리포터 ybbnni@naeil.com

면접일이 겹치는 두 대학에 모두 지원해도 될까요?

고3 학부모입니다.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하려는 대학 중 두 군데의 면접일이 겹칩니다. 1단계에서 서류가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두 대학 모두 지원할까 싶다가도, 어차피 면접일이 겹쳐 수시 6회 중 한 번의 기회를 헛되게 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됩니다.

면접일이 겹치는 경우, 두 대학 모두 지원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_ 서은혜(46·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수시 모집에서 지원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 합격 가능성을 높이고 싶다면 겹치지 않게 지원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원 대학의 면접일이 겹칠 경우 학생의 특정 대학 희망 정도, 성적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지원 여부를 단정지어 말하기는 힘듭니다. 1단계에서 서류가 통과될지 확실치 않으므로 원한다면 지원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시 모집에서 합격 기회를 최대한 살리고 싶다면 겹치지 않게 지원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서울 배재고 장지환 교사는 “상향으로 지원한 두 대학의 면접일이 같다면 더 선호하는 대학을 선택하면 된다. 만약 상향으로 지원한 대학과 안정적으로 지원한 대학의 면접일이 겹친다면 전체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실제로 학생이 상향 지원한 대학과 안정 지원한 대학 중에서 상향 지원한 대학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 면접을 봤다가 결국 두 대학 모두 불합격한 안타까운 경우가 있었다. 다양한 변수가 있어 겹치지 않도록 지원했으면 한다”고 조언합니다.

진학사 우연철 입시전략연구소장은 “면접 일정이 겹치면 수시 지원 기회 중 하나를 그냥 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수시에서 합격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고자 한다면 면접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하는 게 좋다. 성적이 최상위권이라 지원 대학이 한정적이거나 추후 정시까지 고려한다면 면접일이 겹쳐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덧붙여 제시문 기반 면접과 서류 기반 면접 중 어떤 유형의 면접에 자신 있는지도 고려해볼 수 있다. 수능 후 논술 일정과 면접일이 겹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

MORE TIP

만약 11월 27일 면접을 실시하는 서울시립대와 숙명여대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면 추후 공지되는 면접 일정을 미리 확인해보면 좋겠습니다. 두 대학의 면접일은 같지만 면접 보는 시간대가 크게 차이난다면 모두 참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각 대학 입학처 및 수시 모집 요강에 따르면, 서울시립대는 11월 19일 학생부 종합 1단계 합격자를 발표하고 면접 일정을 바로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며, 숙명여대는 11월 17일 학생부 종합 숙명 인재(면접형) 1단계 합격자를 발표하고 11월 23일 면접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취재 김지영 리포터 janekim@naeil.com



〈내일교육〉 편집팀이 매주 독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초·중·고 자녀를 둘러싼 학습·입시·진로·생활 등 질문의 폭을 다양화합니다. 속시원히 털어놓으세요. 이메일(asjung@naeil.com)로 질문과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_편집자